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의 삶

요한계시록 18:1~8

【인도자를 위한 예화】

2022년 1월 11일 광주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 공사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 나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지지대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2023년 4월 29일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층 지붕 층과 2층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도 부실 공사가 문제였는데, 넣어야 할 자재(전단보강근)를 빼고 건물을 올려 하중을 버틸 힘이 없었던 슬래브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서 잘 지은 듯 보이는 건물도,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힘을 주는 뼈대에 문제가 있거나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기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물질,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세상 것들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삶은 인생의 광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는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 뼈대가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나요?

【배경 이해하기】

17장부터는 바벨론과 짐승의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앉아 있다’라는 것은 큰 음녀가 각 나라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미며, 그 손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의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놀라다’라는 말에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경악스러움과 함께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으로 인한 놀라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는 그러한 요한을 향해 책망하듯, 정신을 차리도록 “왜 놀라느냐?”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이 말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짓 진리와 권세들 앞에서 그것이 큰 두려움과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혹은 당혹(감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결국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파괴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일어난 바벨론은 일으킨 그 싸움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양께 속해있는 진실한 성도들의 승리가 함께 선포되며, 악을 악으로 진멸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취하심이 드러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은 무엇인가요?(1~3절)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것을 보았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7장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쥐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번영과 안전과 힘을 보장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음녀 바벨론의 유혹을 거부하는 일은 세상에서의 격리와 배척, 가난과 굶주림, 심지어 폭력과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등장은 세상이라는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바른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즉 요한이 본 환상은 당시 성도들에게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으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자, 그곳이 영광의 땅으로 환하여집니다. ‘무너졌다’라는 말은 ‘무너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결국 바벨론이 완전한 멸망에 이를 것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용과 나눔 I

거짓된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이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가집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관계, 양심, 목적 등은 간과하고 오로지 욕구 충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 번영과 권력을 위해 황제를 숭배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를 거절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로마의 허락하에 누리던 무역 특혜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현실에서는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2:9). 노아는 작은 증거조차 없었던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본토에서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소중한 재산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바울은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단맛에 길든 인생은 결국 파멸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이 주는 단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단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신 6:5) 하신 말씀처럼,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말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하늘로부터 요한에게 들린 다른 음성은 어떠한 명령으로 시작되나요?(4절)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나와).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들린 다른 음성은 큰 성 바벨론의 위협적인 유혹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와’라는 말은 ‘밖으로 나오다, 밖으로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특정 장소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즉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죄악 된 환경에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여하지 말고’라는 말은 같이 하지 않거나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유혹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받지 말라’라는 말은 ‘취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떠나고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번영과 권력과 힘에 인생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력과 절제 없는 탐욕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큰 성 바벨론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이 주는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나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II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벗어나야 할 바벨론은 어디인지 나누어 보세요.

주님은 요한에게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나와)”(18: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적이고 영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절제와 제한 없는 인간의 탐욕은 음녀 바벨론에 무릎 꿇게 하여 삶의 무너짐과 망가짐을 겪게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에 취할수록 사람의 양심은 무너지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의 법칙이나 원리에 순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미래의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인내와 돌이킴입니다. 날마다 빛받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인내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 안에서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나의 삶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 나의 관심과 시간을 허비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